

TV, 세계 생산량 10년만에 “감소”

2012년 2억3850만대 출하로 6% 줄어 … LCD TV도 사상처음 감소세

2012년 세계 TV 공장에서 출하된 TV 대수가 10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IHS아이서플라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2년 세계에서 출하된 TV는 2억3850만대로 2011년의 2억5460만대에 비해 6.3% 줄어들었다.

IHS아이서플라이는 TV 출하량이 2011년 수준으로 돌아오려면 적어도 2015년은 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2015년 2억5310만대의 TV가 출하될 것으로 예측했다.

시장 관계자는 “2012년 출하대수는 2000년대 지속됐던 평면TV 대체수요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모로드는 “시장 궤적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 출하는 평균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늘어나는데 그칠 것”이라며 “특히, LCD(Liquid Crystal Display) TV는 사상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TV 출하대수는 2011년에도 2010년에 비해 1% 증가하는데 그쳤다.

TV 출하대수 감소세는 평면TV 대체 수요가 줄어들고 지역적으로는 일본 판매 급감에 북미와 서유럽 지역의 수요가 감소한 것도 요인으로 지적됐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4/03>